



즉시 배포용: 2025년 6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ICYMI: USA TODAY에 실린 HOCHUL 주지사의 기고문: 아이들은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휴대전화 금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USA Today Network는 뉴욕의 첫 엄마 주지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Kathy Hochul 주지사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적인 휴대전화 금지령을 비롯해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을 단속하고 AI 위협에 맞서겠다는 그녀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기고문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기가 곧 끝나가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상적인 싸움 대신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의 주의를 돌리는 일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이고 휴대폰에 매달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대신 스크롤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대신 다른 사람의 영상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해지고,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듯 또 다른 과학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 주 전역의 부모, 교사, 청소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중독성 있는 기술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뉴욕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이 문제는 저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10대 자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자녀가 고통받을 때 부모가 느끼는 무력감을 잘 압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성한 일처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우리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피드를 독점하고 있는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제한하기 위해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10대 자녀에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회사에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유일한 위협은 아닙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중심의 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AI 기반 기술은 인간 관계를 시뮬레이션하는 AI 챗봇부터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딥페이크 앱까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14세 소년이 AI 동반자와 건강에 해로운 관계를 맺은 후 자살하면서](#) 무관심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아이들의 가짜 누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AI 기반 "옷 벗기기"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걱정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는 종종 10대 소녀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이러한 웹사이트 16개의 방문 기록이 2억 회를 넘었습니다.](#)

주 예산은 이러한 디지털 위협에 직접 대처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AI 동반자 운영자가 사용자가 자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사용자를 위기 핫라인으로 안내하는 등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등 AI 동반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I가 생성한 아동 성 학대 자료를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와 AI가 생성한 웹사이트는 퍼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플랫폼에 의해 삶을 지배당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는지가 아니라, 화면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 속에서 웅웅거리고, 책상 위에서 불이 켜지고, 교실에서 식당까지 아이들을 따라다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교실. 수다 없는 조용한 복도.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대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청소년들이 하루 중 4분의 1을 휴대폰에 보내면, 그들을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성인으로 키우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적 발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머물러야 한다는 압박은 끊이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셔야 해요. 이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뭔가를 놓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기 위한 또 다른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교실에서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때 성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정을 가르치려고 100개의 온라인 영상을 켜서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놀이터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야구공 던지는 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며 어울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현실 생활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실내에 갇혀서 휴대전화에만 갇혀 있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진하는 "인터넷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Get Offline, Get Outside**) 캠페인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놀이터, 수영장을 짓고 개조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수만 명의 어린이가 지역 축구 팀에 가입하거나 지역 극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름 청소년 취업(**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프로그램은 수만 명의 청소년이 공원, 여름 캠프, 문화 센터, 지역 사회 기반 조직 등의 장소에서 좋은 여름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첫 날부터 말해왔고 오늘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인터넷을 끄고 밖으로 나갑시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